安東權氏宗報 발행·편집인 권해옥 편집위원장 권오신 인쇄인 권영웅
발행장소 : 안동권씨대종회,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 (2층)
우 : 02585 전화 (02) 2695-2483~4 FAX (02) 2695-2485
E-mail : andongkwonmun@daum.net / ankwon2695@naver.com
홈페이지 : www.andongkwon.org 안동권씨대종회
헌성금·회비·광고료·종보구독료 등 대종회 입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033237-04-006941 농협 317-0009-7471-41 예금주:안동권씨대종회

安東權氏宗報

宗是
崇祖理念 確立
愛族思想 鼓吹
後學啓導 寄與
社會倫理 培養

[월간] 2020年 1月 1日(수요일) ☎ 대표전화 (02)2695-2483~4 FAX (02)2695-2485 www.andongkwon.org 權氏 紀元1091年 第 535 號

밝아오는 경자년 새해

명문 권문의 발전과 가정마다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100만 족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권기(權紀) 1091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족친 여러분 각 가정마다 건강과 만복이 깃드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동안 대종회에서는 족친 여러분들께서 숭조(崇祖)이념을 이어받아 애족(愛族) 정신으로 단합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몇 가지 주요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족친 여러분의 성원이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9년 1월 초에 권율도원수 행주대첩 기념행사를 국가행사로 격상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1만여명의 족친들이 100만 안동권문을 대표하여 건의서에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대종회에서는 1만명의 대표 서명을 바탕으로 권율도원수 행주대첩 기념행사를 국가행사로 격상시켜 달라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양시에서도 임진왜란이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시에 나라를 구한 권율도원수의 호국정신과 역사적인 공훈을 드높이기 위해 행주대첩 기념행사를 국가행사로 격상시키자는데 뜻을 함께 한 바 있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안동권문 족친 모두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학술대회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권율도원수의 역사적 공훈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이번 시조 추향제에는 향사 이래 최다 인원인 600여명의 족친이 참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심(權心)'임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날 능동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평창공(平昌公)과 학림공(鶴林公) 사적비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평창공은 4~500년 동안 실전되었던 시조 묘소를 온 정성을 다하여 찾은 선조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 후손들은 권기 109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시조 묘소에 제향 드리는 부끄럽지 않는 후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학림공은 기발한 기지로 안동권문의 묘역을 수호한 선조입니다. 그야말로 불후 불망의 공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이 흘러도 능동 성지에서는 이 두 분이 후손들의 사표가 될 만한 어떠한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웅렬고문이 이런 역사적 상황을 이 시대 안동권문의 현안과제로 통감하고서 능동성역화 추진사업비로 1억을 대종회에 기탁하여 100만 족친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디어 역사적인 사적비 제막식을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권웅렬 고문께 감사드리고 추진위원회 권영성 위원장과 모든 추진위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대종회에서는 다가오는 2020년에도 능동성역화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때마침 권오록 고문이 능동성역화 추진사업비로 1억을 대종회에 기증해 옴에 따라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어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조 묘소로 올라가는 진입로 정비 사업입니다. 약 300여 미터에 달하는 진입로는 비가 오면 미끄럽고 물이 고이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동권문이라는 100만 명문거족의 시조 묘소의 진입로라고 하기에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 초라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시조 묘소로 오르는 길에 발을 내딛는 순간 옷깃을 여미며 시조 태사공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나는 추원보본(追遠報本)의 길로 거듭나야 한다고 누차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 길은 그냥 산등성이를 오르는 오솔길이나 산길이 아닙니다. 일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안동권문의 혈맥입니다. 굽이굽이 풀 한포기 돌 하나 나무 한그루도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렇게 뜻 깊은 역사의 길을 조성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담당자들의 중지(衆智)와 족친 여러분의 협조와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입로로 들어서는 입구에 서 있는 표지석 또한 너무 작고 왜소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안동권문의 시조 묘소를 가리키는 표지석 답게 웅장하면서도 위엄 있는 바위로 세울 예정입니다.

둘째, 시조 묘소와 묘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조 묘소 봉분에 대한 사항은 매년 춘추향제 대당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조 묘소는 10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간직한 살아있는 문화재이자 역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역사 앞에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내 혼백의 뿌리 앞에서 혹여 시조 묘소에 흠이 날까 염려하는 그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천년이 훨씬 넘는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실제 시조 묘소 앞에서 자랑스럽게 제향 드리는 그 자긍심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족친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헤아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봉분의 잡풀을 뽑는 문제에서부터 멧돼지가 봉분을 파헤치는 문제, 묘역 주변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시조 묘소 관리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렇게 족친들의 관심이 집중된 시조 묘소에 대해서는 족친 여러분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하여 100만 명문거족의 안동권씨 시조 태사공 묘소답게 지역적인 풍습은 물론 지리적인 특성과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3대에서 9대까지 7대에 걸친 선조들의 단소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는 2018년 정기총회 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족친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찬성과 지지를 보내주셨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단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이므로 설단 장소와 풍수지리학적으로 어떤 장소에 설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독지가의 의중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할 것 같고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넷째는 종보 구독 확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보는 대한민국 모든 성씨 중에서 안동권씨만이 유일하게 신문다운 신문답게 종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영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동권문의 자랑이자 자존심입니다. 이에 주변의 많은 족친들도 종보를 함께 구독하는 종보 구독 확장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보 구독은 대종회 재정의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숭조이념에 입각하여 더욱 내실 있는 종보가 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희망찬 경자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더욱 번창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드리면서 새해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차 상임위원회 개최

안동권씨 대종회 제4차 상임위원회가 12월 11일(수) 11시 서울역그릴에서 권해옥 회장, 권영익 수석부회장과 상임위원으로 권영상 변호사. 권오덕 변호사. 권태호 변호사. 권영길, 권경석 전 국회의원. 권영하 전 서울시의원. 권오한 제주지역종친회장, 권혁찬 세무사, 권기욱 우평코리아 ㈜회장. 권태복 전 서울금천종친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권해옥 회장은 인사말에서 금년은 매우 바쁜 해였다. 특히 권율도원수 행주대첩을 국가행사로 격상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에 건의했으나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또한 능동성역화 사업으로 평창공과 학림공 사적비 제막식을 성대하게 거행했다. 안동권문 향사 이래 600여명이 참석한 역사적인 행사였다. 내년에는 시조 묘소 진입로 공사 등 성역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정관 문제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권주연 전 안동종친회장으로부터 정관에 대한 고소사건이 제기되어 합의서 내용을 정리하고 이 기회에 정관을 다시 손질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정관개정소위원회 구성 문제 등에 대한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정관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정관개정소위원회 위원은 지역 안배,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정관개정소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권영익 수석부회장. 부위원장 권영성, 권순협 상임부회장. 권오신 편집위원장. 위원에는 권광택 청주청장년회장. 권기호 파종협의회 회장. 권숙동 안동종친회장. 권영상 상임위원. 권영하 영등포지역회장. 권영호 전국지역종친협의회 회장. 권오덕 감사. 권오섭 대구종친회장. 권정택 전 기로회장. 권정호 서울청장년회장. 권주연 전 안동종친회장. 권충화 광주종친회장. 권태형 마창진종친회장. 권태호 충죽지역종친회장. 권혁창 감사가 선임되었고 간사에는 권건중 사무총장이 담당하기로 했다.

권영익 정관개정소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명망있는 위원들이 많이 등용되었으니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소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소위원회에서 개정된 정관이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하게 통과되고 총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결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謹 賀 新 年

전국 100만 족친 여러분! 새해 사랑과 행복이 충만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전국 백만 족친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자년 새해에는 백만 안동권문 가족 모두의 건강과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삼가 기원하오며, 만사형통으로 근심 걱정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옵니다. 또한 지역종친회장협의회도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종사 발전과 일가 돈목을 위해 노력하겠사오니 종사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협의회장 권영호(전 부산회장)
고문 권길상(부산), 권동술(합천)
부회장 권충화(광주회장), 권영복(산청회장), 권오한(제주회장), 권태호(충북회장), 권만집(상주회장), 권재덕(진주회장),권성용(부산회장), 권용기(대전회장), 권영화(구미회장), 권경호(영양회장), 권오길(경주회장), 권정걸(안양회장), 권경환(영천회장)
감사 권주연(안동), 권석호(합천)
간사장 권태형(마·창·진회장)

권혁문 강릉회장	권태형 마·창·진회장	권주석 서천회장	권경환 영천회장	권기택 전주·완주회장	권기택 청주회장
권오흥 경산회장	권승구 마포회장	권병후 수원회장	권오영 예산회장	권재원 정읍회장	권태호 충북회장
권오길 경주회장	권태갑 문경회장	권준표 순천회장	권영석 예천회장	권오한 제주회장	권오협 충주회장
권충화 광주회장	권영근 밀양회장	권숙동 안동회장	권영국 옥천회장	권오협 제천회장	권순종 통영회장
권영화 구미회장	권양호 봉화회장	권정걸 안양회장	권희성 온양·아산회장	권천문 중구회장	권봉정 포항회장
권경관 금산회장	권성용 부산회장	권영현 여주회장	권영순 용인회장	권영목 중랑회장	권중관 하동회장
권대영 금천구회장	권혁진 부천회장	권희량 연천회장	권옥술 울산회장	권성업 증평회장	권석호 합천회장
권봉섭 단양회장	권오식 분당회장	권성덕 영덕회장	권창구 원주회장	권재덕 진주회장	
권공식 담양회장	권영복 산청회장	권영하 영등포회장	권병택 음성회장	권오섭 진천회장	
권오섭 대구회장	권만집 상주회장	권경호 영양회장	권병기 의령회장	권계수 창녕회장	
권용기 대전회장	권상용 서남권회장	권영창 영주회장	권용규 의성회장	권영모 청송회장	

안동權씨 전국지역종친회장협의회 회장 권영호